



문화매일신문



제1506호

2023/12/20/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물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최광수/기자



경북도, 2024년 경북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 교육과 인재투자 지속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본격추진, '경북투자활성화 펀드'연내 출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경북도정을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년 도정성과와 2024년 도정방향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3년을 "지방화를 이끌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한 해"라 평가하고 내년에는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기 위해 관주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간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전략은 산발적 소규모 투자에 머물러 지역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부족했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투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기다리는 투자였다"고 평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 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해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에는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호텔, 리조트 같은 관광단지, 물류단지과 같은 서비스산업 투자와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 등이 인기유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재정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재정으로 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많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자금과 수익성이 부족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펀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간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도 화두로 내세웠다.

민선 7기부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4개인 특구를 신규 유치해 확장하고 기존 특구는 국제적인 표준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행정절차의 지연등을 즉각 처리하기 위한 규제혁신 전담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해 현장밀착형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이지만, 지역의 규제는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대표되는 4대 지방시대특구는 추진단을 만들어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 대학과 원팀이 되어 추진하고 확실한 투자결정이 미리 확보된 특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과제인 K-U시티를 지속확산하고 시군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과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인재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내년 민생대책으로 도민 안전권과 이동권 확보를 최우선과제

로 뽑았다.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현장중심 상황관리와 함께 대응과정에서 현장 대응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해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체계와 피해복구과정에서도 부서간 유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산사태 방호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건립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도민의 이동권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확산을 통해 보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노선과 정류장이 고정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능동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경북은 이미 포항, 경주, 칠곡, 울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주민주도형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도청신도시에 시범운영 중인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경북혁신도시와 보문단지 그리고 경산의 임당역 등으로 확대하고 70세이상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확대해 넓어진 활동반경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넓어진 성장판과 새로운 산업지형에 걸맞는 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민자유치 등 도전적인 과제로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해 사람과 돈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다양한 성과들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다"면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하고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경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수도권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 동일 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던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 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 번째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선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 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경상북도 |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경북도의회, 경북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8일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하며 연말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섰다.

이 날 전달식에는 배한철 의장 및 박영서 부의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 김도현 부회장, 김영락 적십자봉사회 경북협의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재난피해지역

지원 등 나눔·지원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배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재해 구호활동에 항상 앞장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큰 시름을 안겼던 집중호우 피해 구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데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심시일반 모금한 회비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도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의회, 19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영주시의회(의장 심재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을 면밀히 살펴 시정 61건, 처리 77건, 건의 37건 등 총 175건을 지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각종 위원회 정비, 각종 용역·공사 관련 잦은 계획 변경

지양 등이 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반회계 9,684억 원, 특별회계 966억 원을 합한 총 1조 650억 원 규모로 1,150억 원(전년도 대비 12.1%)이 증액된 2024년도 예산을 의결했다.

심재연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부산시의회, 우호교류협약 체결한 상해 인대 상무위 공식 초청 방문

상해 인대 상무위 부주임 면담, 홍차오입법민원센터, 플랫폼기업 메이투안 등 방문



부산시의회 대표단(단장/제1부위원장 박중목)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상해시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한다.

상해시 인대 상무위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코로나로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가 지나고 변함없는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해시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첫째날은 지난 1997년 우호교류를 체결한 후 정기적으로 양 도시를 교차 방문해 우의를 다지고 있는 상해 인대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여 부주임을 만나 양도시간 더 발전적인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날은 입법을 위한 시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홍차오입법민원센터를 방문하고, 한국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2023년 평가대회 및 성과보고회 개최

2023년 활동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

구미시는 18일 성리학역사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3년 평가대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에서 이어 활동 성과 영상을 시청하고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했으며, ‘행복한 나, 너, 우리’라는 주제로 리더십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여성단체 평가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자체사업 참여 실적, 단체별 특수사업과 시정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개 단체(최우수 1, 우수 2, 장려 4)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구미푸드페스티벌, 라면축제 등에서 친환경 프레쉬존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한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미시지회(회장 김영숙)가 받았다.

신경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구미시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여성 리더십을 통해 일상 속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구미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경하 사회복지장은 “올 한 해 여성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일상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대구시의회 맑은물 특위, 안동댐 현장방문

12월 18일 맑은물하이웨이 사업현장 찾아



대구시의회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안동댐을 방문해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동시와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대구시의 ‘맑은물하이웨이’ 추진안이 환경부에 공식 제출되고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안동시·안동시의회와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맑은물특위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관계자로부터 안동댐 시설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

고, ‘맑은물하이웨이’ 추진안 취수예정지 등 현장을 시찰했다.

이후 가진 안동시장, 안동시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대구와 안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 강화와 협력을 다짐했다.

김원규(달성군2) 맑은물특위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해 고착된 물 문제를 해결하고,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안동시의회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와 안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벽제수질복원센터, 인근 주민 소외 심각”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동의 하수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의미로, 오수를 모아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다.

고양시에는 일산, 원동, 삼송, 벽제 등 총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지영동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4월 부지면적 29,887㎡, 1일 하수 처리 용량 3만톤 규모로 준공됐다. 이후 2017년 11월 2단계 준공, 2020년 1단계 증설 준공 등을 거쳐 현재 시설 용량은 1일 39,200톤으로 가동률은

94%이다.

하지만 이 수질복원센터의 처리구역 중 하나인 고봉동은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심지어 ‘처리’, ‘비처리’ 구역으로 분류해 집 바로 옆에 하수관이 지나가도 ‘비처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하수를 연결해주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고봉동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4,442세대 중 28%인 1,229세대는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

고 의원은 “주민들이 직관 연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벽제수질복원센터의 가동률이 95%이며 용량이 부족해 연결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세차례에 걸쳐 9,200톤을 증설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내 집 앞마당에 우물을 파놓고서 집주인은 물을 못 먹고 나그네만 우

물 물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방류수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6년 9월부터 20년 간 아이비환경(주)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24시간 방류수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5년간 ‘방류수 기준 초과’가 14건으로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치를 초과한 방류수는 고스란히 공릉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비오는 날이면 벽제수질복원센터의 가동률이 98%까지 올라가고 오염수 역류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악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원을 넣어도 그때마다 터진 부분을 메우는 임시방편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누구를 위한 벽제수질복원센터냐. 왜 늘 소외지역만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나”며 “하수처리시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광고국:1899.9659 경 제 부:내선 (114) 오키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의공론조사 참여 경기도민 95%,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찬성”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속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에 대한 속의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속의공론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학습 없이 한 차 조사(9월 13~27일), 1차 조사 응답자 중 성별·연령·권역 등을 고려해 모집한 도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작성한 속의자료집으로 자가학습을 한 후 실시한 2차 조사(11월 18일), 속의토론회 참여 후 3차 조사(11월 19일)로 이뤄졌다. 속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속의과정을 포함했다.

속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 연한 후 폐기 문제 (1차 25%→3차 11%) ▲집중 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한 점(1차 19%→3차 6%)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1차 14%→3차 7%) 등에 대한 우려는 감소했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게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지 못는 결과, 1차 조사 당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88%에서 3차 조사에서 99%까지 높아졌으며, 효

됐다. 경기RE100 도민 참여 방안으로는 홍보 50%, 인센티브 제공 11%, 관·관, 민·관 협력 8% 등이 제시돼 홍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진행된 이번 속의공론조사는 (주)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속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교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결과보고회에서는 속의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세종대 전의찬 교수, JTBC 박상욱 기자와 경기도 정책 담당자인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이 속의공론조사 결과 및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속의공론조사를 주관한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RE100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9%p(1차 10%→3차 1%) 감소했다.

경기RE100이 분야별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기RE100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2차 조사(68%) 대비 3차 조사(85%) 결과가 17%p 증가했다.

도민들은 경기RE100 4대 분야인 기업·산업·공공·도민 RE100의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크게 공감하고(기업·산업·공공 RE100 시급성 2차 92~98% → 3차 98~100%)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도민 RE100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성(2차 86% → 3차 90%)은 낮게 응답

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성공적인 경기RE100 추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경기도가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8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감사패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은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이기인(국민의힘, 성남6), 박세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는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이 수상했다.

우수의원 감사패 수여에 대해 안계

일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2년차에 들어서며 의정활동의 성과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위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선정된 김시용 의원은 ‘건축물 붕괴 예방 및 대처 계획 수립 촉구’, ‘CPR 훈련을 위한 애니(심폐소생술용 마네킹)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힘썼으며, 이기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승진 차별’, ‘공동구 소방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세원 의원은 ‘내용연수 넘긴 소방장비 사용 지적’, ‘자치경찰제도 개선 촉구’ 등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이기환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개선 촉구’, ‘승강기 사고 관리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해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여줬으며,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심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 위원회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해은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정담회 가져

성남해은학교 장애학생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 절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8일 성남해은학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성남해은학교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승호 의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구유숙 지역교육협력과장, 성남해은학교 서병국 교장·김현수 교감을 비롯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단대공원 연계, ▲과밀학급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제안, ▲주

변 체육시설 이용 등 장애학생 케어를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확충 필요 등을 논의했다.

성남해은학교 서병국 교장은 “지금 학생 수가 워낙 많고, 입학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있는 실정에서 현재 학습공간을 줄이고 체육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성남 인구가 9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특수학교가 2개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추가적인 특수학교를 설립해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학교가 공간적인 제약이 많아 인근에 위치한 단대공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학부모님과 학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시에 의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 도약하는 지역경제
- 감성충만 관광문화
- 시민행복 맞춤형지
- 인재양성 미래교육
-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용인특례시, 광고산 송전철탐 이설 관련 이교우 시의원 5분 발언에 "GH 공사 무기연기시키는 등의 시 노력 폄훼하는 것"

시 관계자 "시는 사업시행자 회의 등에서 성북동 주민 의견 적극 전달하고 GH 착공 지속적 반대"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광고산 송전철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 외에 별다른 일이 없다는 식으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 정쟁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19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할 때 시의회에선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동안 침묵하던 이교우 시의원에게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 한번 했다고 해서 해당 시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일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 하는 척하는 '시흥'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교우 시의원은 15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고산 송전철탐 이전 설치 문제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탐 이설 반대를 주장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용인시에서 주민의 입장이 되어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그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H가 지난 9월 1일 광고산 송전철탐 이전 착공을 강행하려 한 것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은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교우 시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과 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H의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서 발언 한 번 나온 적이 없다"며 "시장과 시가 공사 강행을 막고 급한 불을 꺼놓고 난 상황에서 나온 이교우 시의원의 발언은 뒤늦게 뒷북을 때리면서 시에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광고산 송전철탐 이전과 관련해 2010년부터 담당 부서를 통해 수지구 성북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동사업시행자인 GH·경기도·수원특례시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북동 주민들이 송전철탐 이설 반대민원을 내기 전부터 시는 GH를 비롯

한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냈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GH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022년 7월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GH로 변경해 올해 9월 1일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는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탐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11월 권고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8월 21일 김홍일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전화도 걸어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문제를 부각시켜 GH의 송전철탐 이전 착공을 연기시켰다.

이후 권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일곱 차례에 걸쳐 현장 등을 방문하고 중재 활동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 성북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한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경기도와 갈등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갈등조정 협의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고, 성북동 주민들의 김동연 도지사 면담 요청도 전달했다.

지난 8일엔 '경기도 갈등관리의심위원회'에 송전철탐 이설 이행을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23년의 최근까지 시의회 속기록, 각종 언론 보도,

사업시행자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북동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이나 활동이 이번 이교우 시의원 발언을 빼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주민 걱정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송전철탐 이설 공사를 시가 연기시켰지만 각 시행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수원 경계 안의 일인 만큼 용인의 역할도 제한돼 시청 공직자와 성북동 주민들이 오랜 시간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교우 시의원이 시장 서한문 외에 뭘 했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는 냉소가 공직자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교우 시의원이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서한문을 보낸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교우 시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4년 동안 용인시정을 이끌었던 백근기 전 시장이 한 일이 없다는 뜻이 된다"며 "이교우 시의원 발언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를없는데, 앞으로 발언을 하려면 사실관계도 치밀하게 확인하고 논리도 그럴듯하게 잘 세워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수도물 안전한 공급망(Standard Model) 구축

이천시가 급수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마을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오던 관내 급수 취약지역에 수도물 공급 지역을 확대하고, 상수도 블록구축시스템사업으로 수도물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표준모델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 물공급 상수도관망 블록구축시스템 구축

이천시는 상수도 배수관망을 여러 개의 독립된 중·소블록으로 구축하여, 각 블록의 수압, 유량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블록구축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있는 상수도 관망을 여러 개의 블록으로 지정하여 블록별로 상수도의 유입점을 단일화하고, 각 유입점에 유량계와 수압계를 설치하여 수질 및 재난등 비상시 단수로 인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는 급수체계를 말한다.

이천시는 지난해까지 56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이전배수지 급수구역 17개 소블록 구축을 완료했고, 올해는 20억 예산을 투입하여 아리산 및 대포 배수지 급수구역에 12개 소블록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시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장호원을, 대월면, 설성면 지역에 7개의 블록구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설성·목골 및 대포 일부 소블록 11개를 추가로 구축하여 이천시 전체 소규모 블록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노후상수관로 정비, 누수 감시 및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은 물론 유출을 제로로 현재 87%인 유수율을 2032년까지 93%으로 끌어올리면, 블록당 연간 2~3억의 수도물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질부적합 지하수 이용 마을상수도 → 안전한 지방, 광역상수도 전환

이천시는 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마을상수도 원수 고갈, 질산성질소, 라돈 검출등으로 수질부적합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전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올면 총곡2리, 대월면 부평2리, 장호원을 나래2리 등 3개 읍면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도에는 도비8억, 시비 1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7억을 투입하여 대월면 군량1리, 군량2리, 군량3리, 마장면 장암2리, 백사면 신대리 등 5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전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주민이 모두 상수도 급수신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가 빠른 상수도 공급에 일조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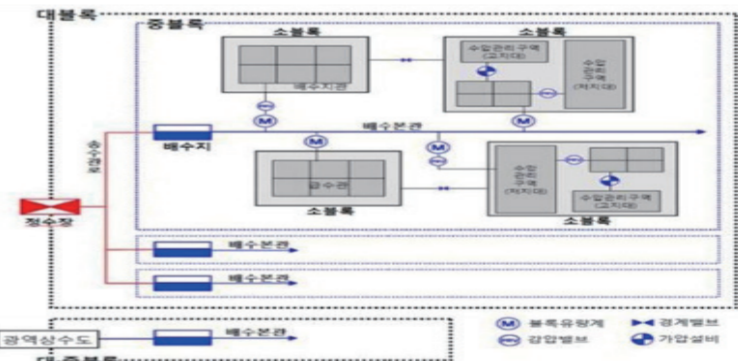
◇ 2023년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성과 가시화

이천시가 환경부로부터 승인(2022. 09)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포배수지 증설,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 마을상수도 전환, 노후관로교체, 블록구축사업등을 계속 추진하여, 그 결과 2023년 9월 이천시는 2023년 물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최우수" 기관 선정되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물 공급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천시는 2023년도에는 4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 △수도도량기 검침시스템(원격) 현대화 사업 △유해성분없는 안심계량기 교체사업등 수도시설의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도에도 차질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도비를 지원받아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등 수도시설물 개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짧은 시간안에 많은 사업이 시작되고 있으며, 수도시설의 공급 확대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 및 인프라 준비를 통하여 이천시민이 만족하는 수도물 공급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민관협력의 중심, 의정부시 지사협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시는 12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10기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김동근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7명과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 학계 등 사회보장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 위원 2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및 사회보장 관련 시설 대표, 주민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년간(2023년 12월~2025년 11월) 대표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윤연희 회장, 부위원장으로는 민락재단 나눔의샘 양로원 김용환 원장을 선출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및 8개 실무분과와 민관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있어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2년간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4 1월13일~14일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개최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겨울스포츠의 꽃'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가 2024년 1월13일~14일 이틀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묘기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월 13일 ~ 1월 14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1월 6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페스티벌 (1월 7일)

_ 장 소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최 :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 대한산악연맹

주관 :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완도군, 전남 인구정책·귀농어귀촌 평가 '우수상' 수상

완도군은 지난 14일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인구정책·귀농어귀촌 우수 시군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먼저 '인구정책'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문제 극복 노력도와 정책 개선 및 추진 성과, 우수 사례 등을 평가한 후 8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1차 정량 평가는 ▲인구수 사회 증감률 ▲청년 문화 복지카드 발급률 ▲인구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8개 지표와 2차 정성 평가는 인구정책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군은 '완도 청년센터 원생'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 청년마을·상가·주택 등 청년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귀농어귀촌' 종합 평가에서는 귀농어귀촌 유치 실적, 홍보 및 교육 등 9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특히 전입 실적과 '22~23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 참여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정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전남도, 지방시대 발전 전략 전문가 머리 맞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지방분권 등 주제 발표·토론

전라남도는 18일 여수에서 '전라남도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에는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전남도, 22개 시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소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박병희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바라본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로 역할을 위임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문구 소장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개념과 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환경, 기반시설 확보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제시했다.

김대성 실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전남 공교육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교육발전특구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도 차원의 전략을 설명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응해 지방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우수 농수산물 베트남 시장 진출



진도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유통업체 동양농수산물 1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우홍섭 진도부군수를 대표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베트남을 방문해 원마트(하노이 소재), 플러스마트(박닌 소재) 등 진도 농수산물 판촉행사에 참석하고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협약은 앞으로 1년간 진도군 농수산물의 베트남 시장 100만 달러 규모의 입점을 주요 내용으로, 호주와 미국 수출 협약에 이어 3번째 농수산물 수출 협약이다.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진도산 백미, 꽃게, 미역, 다시마, 김부각, 울금 가공식품 등의 홍보와 판매 강화를 위한 판촉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노이의 원마트에서는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맞춰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박닌의 플러스마트에서는 국내 대기업 현지 공장이 있어 고품질의 맛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베트남 교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진도군과 베트남 교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홍섭 진도부군수는 "호주와 미국에 이어 베트남에도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도군 농어가의 실소득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7월 호주와 100만 달러의 진도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11월에는 미국 시장에 5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을 달성해 우수한 농수산물의 무한한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주민 주도 사업 추진성과 '최우수' 달성, 상사업비 5천만원 확보



나주시가 주민 주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 나눔대회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식전환', '환경정화', '경관개선'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주관 시책사업이다.

나주시는 올해 마을 136곳이 사업에 참여했다. '마을 벽화 그리기', '마을 디자인 우편함 및 문패 제작', '마을 소공원 조성' 등 마을별 특색과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나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컨설팅단 활동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해 추진한 각종 워크숍·교육 추진 활동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종합평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더불어 마을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 실적을 달성했다. 사업 3년차인 동강면 마현마을과 1

년차인 반남면 옥련마을, 동강면 북룡마을, 봉향면 선동마을이 각각 전라남도 우수마을에 선정돼 내년도 사업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동강 마현마을은 마을 주변 화단 조성 및 벽화 작업을, 반남 옥련마을은 마을 진입로에 특색있는 구조물 설치, 동강 북룡마을과 봉향 선동마을은 각각 빛바랜 노후 담벼락에 마을 특색을 살린 벽화를 그려 넣어 생동감 있는 마을 거리를 조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내 마을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공동체 인식을 갖고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마을 경관개선은 물론 지역사회 행복의 변화를 만들어준 주민들의 애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나산실용예술중학교, 사랑의 김장김치 20박스 나눔 실천

사랑의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 통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전남 함평군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관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김치 만들기 및 전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 행사는 학생들이 배추 씻기, 속 넣기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김장 김치 140kg을 담가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안부도 살피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나산실용예술중 관계자는 "이번 김장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기부를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며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화자 나산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남원시, 새 도시브랜드와 함께 새롭게 피어나다

남원시 도시브랜드 확정 피어나다 남원

남원시는 19일 남원만의 매력과 미래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BI)를 피어나다 남원 로 확정·발표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사랑과 존함, 국악과 소리가 어우러진 전통적인 도시에서 나아가 남원이 가진 문화적·예술적·산업적 가능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피어남을 표현했다.'

디자인은 도시브랜드 최초로 남원 출신 김병중 화백의 화향산수를 모티브로 문화예술과 미래가 새롭게 피어나다를 표현했다.

서체는 사랑으로 뻗어 나가는 획들로 영호남을 잇는 사통팔달 남원시의 지리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슬로건인 '피어나다, 남원'과 어우러져 도시의 역동성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더욱 잘 전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남원의 미래와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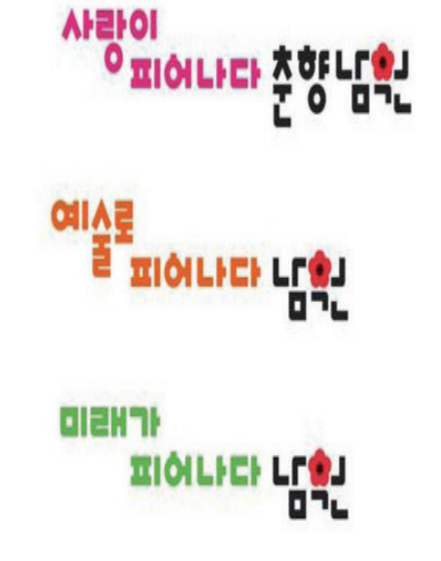
를 토대로 도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18개 중에서 전문가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5개 슬로건 후보안을 선정해 이통장 설문조사와 청소년 수련관, 광한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30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후보안 2개를 선정했다.

또, 디자인 적용까지 마친 최종 후보안 2개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00여명이 참여하여 '피어나다, 남원'이 56%의 선택을 받아 최종 결정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로 남원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문화와 예술,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을 새로운 도시브랜드(BI)를 통해 대내외에 널리 알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설명회 개최

순천 경제 영역 확장, 미래비전 제시하는 세일즈 행정 추진

순천시는 19일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그린바이오, 순천의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바이오 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자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들로, (주)네추럴앤도텍 본부장을 비롯해 45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순천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시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특별초청 연사 박재규 KT&G 원장의 '홍삼의 이해' 강연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원 박경옥 산업개발국장의 '기업체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기지원 승주읍으로 이동해 미래도시 모습의 청사진을 현장감 있게 제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서 확장해 '지·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개선·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순천대학교는 인재양성 및 기술지원을, 시 출연기관인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원과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소재개발과 R&D를 지원하며 승주 그린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지·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순천시-㈜유엠 투자협약식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원-순천앤매시(주) 기술이전식이 함께 이루어져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 특히, (주)유엠은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입주해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제정된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순천을 위해 활동하는 청년기업인 10명의 위원 중 남대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이후 순천은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4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우주·첨단소재에 이어 바이오까지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로봇과 우주 등 순천의 신산업 분야를 총망라한 '2023 순천의 내일을 잇는 미래채널'을 함께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복지부 복지서비스 3개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높게 평가



전북도가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서비스분야 평가 3개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계획 수립과 실적을 분야별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보장시행결과 ▲아동정책시행실적 3개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

업은 10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지역사회보장시행결과와 아동정책시행실적 평가는 작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분야에 대한 전라북도의 열정과 노력이 3관왕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자율형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인 가격탄력제 시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유형별 교육 및 컨설팅, 시민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한 제공기관 품질관리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역사회보장시행결과 평가는 사업구성상 민관협력의 비중이 높고 사업성과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초

점을 맞춰 추진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아동정책시행결과는 전라북도가 지역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체계적인 아동정책 추진과 아동돌봄을 위한 지원사업실적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라북도는 올해 복지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작년보다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와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리도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실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전남 1위

전국 6개 지자체 수상... 보성군 우수상 수상으로 포상금 1천만 원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전남 1위로 우수상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단 6곳에만 상상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소득, 재산 및 인적 변동이 있는 가구 등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복지 대상자 사후관

최원영/기자

목포시'고향사랑기부제'참여 3,000건 달성

시행 1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의 고향'목포'를 지켜나가는 원동력 되길

목포시는 12월 14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3,0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9일 고향사랑기부 3,000건 달성을 기념하고,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감사 행사를 전개했다.

또한, 시청 현관에 목포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을 전시하고 홍보자료를 비치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는 직원과 청사 방문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 3,000건 달성 성과에 대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의 동참과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고향사랑기부는 목포랑 함께' 이벤트 추진, 고향사랑e음 시스템 안정화 지속 요청, 답례품 만족도 피드



백 신속 대처 등 기부자들의 호기심은 더하고 불편함은 줄이려는 노력 덕분에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 목포 출신 가수 남진이 연

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예비 기부자의 관심을 얻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년 계묘년을 한해 목포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마음을 하나하나 소중히 새기며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기부금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연말정산 골든타임에 맞춰 연말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에 집중하는 한편, 12월 중 기부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가치소비를 중요시하는 기부자를 위해 기금 사업인 "보호호랑이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장흥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김성균수 "지역민과 민관 협동으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장흥군이 19일 열린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주거복지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장흥군은 이날 지자체에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장흥군은 지자체의 예산없이 복지재단, 방송사 등 외부자원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내 재능기부 기관·단체 연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돕고 있다.

적은 사업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희망가꾸기 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신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상

박재원/기자

구례군,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 캠페인

전남 구례군은 12월 18일 구례5일 시장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홍보와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실천을 위한 군민 참여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례군은 구례5일시장을 방문한 군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리사이클 양말)을 배부하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

늘 만들기 실천을 유도했다.

구례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동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특별점검과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현/기자



신안군,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 실현 기대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 통과



신안군은 한차례 고배를 마셨던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

젝트는 윤석열 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신안군에서 추진한 관광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오는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을 섬 음식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핵심 사업인 식문화복합센터(연면적

김영진/기자

6,970m²)는 인포메이션, 연구소,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식문화 연구·교육·체험을 위한 시설이 두루 갖추고 있으며, 숙소 36실을 계획하여 체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산물판매점, 레스토랑, 푸드비치야시장, 다이닝파크, 산책로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부대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신안군에서는 내년 초에 설계 공도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늦어도 2025년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추포도는 동서로 150km, 남북으로 100km에 펼쳐진 신안군의 중심점에 있다"라며 "신안군이 보유한 섬 음식문화 자원화를 통해 세계적 맛의 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관광섬 확산도와 추포도 음식 테마 자원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지역 인프라 기반 화장품 관련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경북도는 12월 18일 라온제나호텔 에테르널홀에서 뷰티산업 관련 기업과 주관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의 성과 확산과 2024년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지역 내 뷰티기업의 지원사업 성과를 24개사 제품을 전시하고, 화장품 소재 관련 기술 활용, 경산시 화장품 특화단지 분양,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전략에 대한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해 지역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은 2022년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선정되어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뷰티산업과 전·후방산업의 연계 성장을 지원한다.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대구테크노파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재)경북테크노파크,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사)이노비즈협회가 참여해 사업을 수행 중이며,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44개 기업을 지원했다.

한편,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 일자리 창출 26명, 매출성장률 17%를 달성했으며, 제품개발 101건,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29건, 임상시험 및 효능검증 14건,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14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내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앞

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과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뷰티산업과 기업이 보유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수출

중심의 안정적인고 지속가능한 뷰티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달성 눈앞에

홍보챗린지, 기부품앗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효과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예천장터 쿠폰,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 농산물꾸러미, 뽕과일젤리, 별초대행서비스(시즌 한시적 운영)
-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예천군

예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순위에서 전국 상위를 기록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예천군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적극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기부금액이 꾸준히 늘어 지난 8월 기부액을 공개한 전국 지자체 177곳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기부금 '8억 달성 행운 이벤트'를 한 지 20여 일 만에 7천만 원을 모금, 현재 누적 금액 9억 3천여만 원(12월 15일 기준)을 기록하면서 1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천군의 성공 요인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책에 대한 김학동 군수의 남다른 열정과 의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챗린지'를 하며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군민들과 사회 및 친목 단체, 기부 품앗이를 하며 모금 활동을 이어온 직원들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품

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던 것이 주요했고 여기에 출항인들의 남다른 고향 사랑이 더해져 결과가 배가됐다는 평가다.

군은 답례품으로 예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천장터쿠폰과 예천사랑상품권,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 농산물꾸러미, 뽕과일젤리, 별초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갈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소액 기부를 활성화해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 출항인들과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활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주어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농협은행 또는 지역농·축협에 접수해 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우즈벡 사마르칸트 대표단과 경제 분야 협력방안 논의

경주시-우즈벡 경제교류단 양도시 상호협력 간담회 가제



주낙영 경주시장이 1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경제교류단을 접견하고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이벡 함라예브' 사마르칸트 부지사를 비롯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경제통상부 참사관 및 사마르칸트 기업인들도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주시-사마르칸트시 우호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는 경제여건과 산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사마르칸트 우호결연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과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산업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상호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우즈벡 대표단은 경주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 방문 등 경주시의 선진 시스템 견학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경주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를 통해 경주시 기업인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경제교류단은 불국사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고 충북으로 이동한 후 오는 21일 귀국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영주시,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 '우수 지자체' 선정

경북 영주시는 문화재청 주관 '2023년도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에서 전년도 대비 향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은 지자체의 국가유산 전담인력, 관련 조례, 예산현황 및 집행률, 국가유산 지정 수 등 문화유산 관련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우수분야, 정량평가 향상분야 등 3개 부문에서 2개 광역 지자체와 영주시를 포함한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영주시는 국가유산 관련 조례 보유 수, 예산 증가율 및 집행률, 국가유산 지정·등록 현황, 활용사업 수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상숙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영주시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사업 부문에서 최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가유산 관리역량 진단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살롱' 개최!

영덕 관광의 핵심축이 될 거버넌스 구축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영해만세시장 내 '3.18문화 살롱'에서 제1회 관광포럼 '영덕관광살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덕관광살롱'은 목전의 과제인 영덕 관광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업계, 관광 학계 인사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기획됐다. 이 모임을 토대로 영덕 관광의 핵심 견인차가 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관광포럼 당일 재단은 영덕의 관광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 관광의 현주소와 가능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타진하게 된다. 또,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 영덕 관광에 관심이 큰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영덕관광살롱' 담당자의 포부도 크다. "재단이 주관하여 관광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영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말 소중하다. 첫 모임을 디딤돌 삼아 관광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공동의 목표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회 '영덕관광살롱'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참여자는 선착순 20명으로,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영덕문화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광마케팅팀문의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장성연 마라톤 선수, 수년째 성금 100만원 쾌척



울진군 북면은 울진군 육상경기연맹 마라톤 훈련 이사이자 울진군청 건설과

(청원경찰)에 근무하는 장성연 씨(47세)가 마라톤 대회 입상 시상금의 일부

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9일 전했다.

장씨는 자신의 과거 힘든 시절을 생각하며 넘겨지 않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받은 시상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고, 전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 다수 출전하여 받은 시상금 100만원을 고향인 울진군 북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장씨는 울진군 북면 소곡 출신으로 학창시절 중장거리 육상 선수로 활동했으나, 부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취미로 마라톤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군에서 개최한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육상종목 10키로와 5천미터에서 2관왕 하는 등 군이 종합 우승을 하는 데 크게 기여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 울진군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마라톤 저변확대와 울진군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중 북면장은 "고요한 새벽을 열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중 가장 어렵다는 마라톤에 출전하여 자신이 노력한 대가의 일부를 성금으로 기탁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장문화/기자

20돌 맞은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기념 행사 가져

소비자정책 기초,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로의 전환



경북도는 12월 18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개소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의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1부 경제전문가 특강으로 MBC 손에 잡히는 경제의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을 초청하여 '행복한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2부 세미나에서는 관계 기관 패널을 모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 기초에 대응하는 소비자의 태도'에 대해 다루었다.

외부 정보 전시 코너에서는 숙박서비스, 캠핑용품 등 소비자 안전 정보와 물

티슈의 오해와 이해, 플라스틱 다이어트 등 교육 정보, 투자자문서비스, 인터넷 교육 서비스 등 피해예방 정보를 함께 소개하고 공유했다.

경북도 소비자행복센터는 그간 소비자 보호라는 인식을 넘어 소비자의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고, 기념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상생이 강조되는 방향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도민이 20년동안 키워주신만큼 앞으로의 20년은 소비자 역량을 키워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 남산동에 사랑의 김장 김치 기탁

부산 금정구 남산동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부총장 겸 센터장 권오경)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김장 김치 4kg 206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담은 김장 김치를 기부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

전달받은 상품은 남산동 저소득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농업정책 경북도내 최고 입증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 '대상' 등 각종 수상소식 이어져

청송군은 최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 각종 농업정책평가에서 '과수산업육성 시책평가' '대상', '산지유통 시책평가' "최우수상", '식량시책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1월 농정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북 최고의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는 과수생산 분야 예산확보 및 과수산업 육성 노력, 지자체 관심도 등으로 평가했고, 산지유통시책 평가는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및 마케팅조직 역량 등이며, 식량시책 평가는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등을 평가했다.

청송군은 미래형과원 조성 목표비 지

원, 저온피해예방을 위한 과원 미세 살수장치지원 등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복지 무절단 사과 유통에도 힘써 국내 사과 시장의 유통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다. 또한 사과뿐만 아니라, 쌀 과잉 문제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콩 생산농가 지원으로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3년 시책평가 성적은 청송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송군 농정발전과 경쟁력 있는 미래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 부산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 개최

12.19. 14:0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려

부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2023년 부산시 의료관광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대학·유치 의료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는 부산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제언,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2015년 협의회 설치 이후 올해 3월, 제5기가 출범했다.

제5기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 호텔 및 관광 협력기관 등 총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조성, 의

료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부산시는 의료관광 국내외 시장동향, 부산시 현황 및 대응 방향, 2024년 비전 및 성장전략 및 세부사업 등이 담긴 '2024년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제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위원별 의료관광 선순환구조 조성, 의료관광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4년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2024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과 사업을 담은 발전계획으로, 'Busan is Good to HEAL!', '치료받고 치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 12개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된다.

치료받고 치유하기 좋은 부산의 의미를 담아, 'HEAL'을 강조한 전략을 설정하고 ▲유치역량 강화(Hard) ▲콘텐츠 차별화 강조(Emphasis) ▲목적지 홍보브랜드(Advertise) ▲시장개



척 선도(Lead),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평가를 통해 국비로 추진할 사업들을 포함, 총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언급된 위원별 정책제언을 수렴해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치료받고 치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해 의료관광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검토해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아트웨이는 지금, '2023 범어윈터아트페스타'로 후끈!

3회째 개최되는 범어 지하 거리 축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구아트웨이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3 범어윈터아트페스타를 범어 지하도 전 구간에 개최한다.

'2023 범어윈터아트페스타'는 대구아트웨이의 연말 정기프로그램으로 전시, 공연, 특강, 체험,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과 예술인이 직접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거리 축제다.

기획전시 '은/는/이/가'는 '물, 불, 나무, 쇠, 흙' 등 다섯 가지 요소의 에너지와 성질을 탐구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연계 공연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곡진규의 'Cycle'이 12월 19일 12시 30분에 중앙무대에서 펼쳐진다. 12월 20일에는 '영록(마살리나) 밴드'의 캐럴 공연이 12시 30분과 18시에 각각 중앙무대에 펼쳐질 예정이다.

특강은 도슨트 김내리와 함께하는 '일상에 예술을 들이는 일, 아트컬렉팅'

이 12월 19일 14시부터 창작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대구아트웨이가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는 장소인 만큼,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서부터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아가 작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아트컬렉팅 입문자를 위한 길을 안내하고자 준비한 강의이며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구아트웨이에서 지속해서 진행해 오던 체험교육은 이번 행사를 맞아 입주예술훈 15팀이 무료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각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예술가와 담소를 나누고,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장식을 만들거나 드로잉 등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스튜디오 방문 시 받은 스탬프를 5개 모아 오면 1월 100명의 시민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12월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되며, 스튜디오별 시간표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트마켓은 사전 셀러 모집을 통해 대구에서 활동하는 15팀을 선정하여

다양한 예술 상품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지하 6, 7번 출구 인근의 미술점에서는 4명의 여성 회화 작가들(박하나, 배지경, 윤예제, 이은비)의 소규모 아트페어가 진행된다. 또한 1일 200잔의 따뜻한 빵쇼와 핫초코 음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범어다방이 열리고, 여러 언어로 표현한 새해맞이 인사말 포토존과 소원 빌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하 11번 출구 앞 창창더하기에서는 에브리데이북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2월 19일에는 '헌책으로 만드는 2024 업사이클링 달력', '사진책 서점 낫은리북스 운영기'가, 12월 20일에는 저자 북토크 '이것도 제 삶입니다(저자, 박채영)'가 진행된다. 그리고 창창미디어룸에서는 예술인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마련된다.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은 "범어윈터아트페스타는 범어 지하도 전체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



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이 있다. 연말연시에 거리 축제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 모두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어윈터아트페스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구아트웨이 홈페이지, 대구아트웨이 SNS(인스타그램@dg_artway,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경북 22개 시군 중 2위 차지, 2022년 우수기관에 이어 연속으로 거둔 쾌거

영양군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2022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급원 안전한국훈련은 영양군-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영양군 문화체육센터 대형화재·인파사고 및 산불 발생이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군청 및 유관기관, 민간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2023년 안전한국훈련에 대해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영양군은 그중 2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게 됐다.

영양군은 2023년 처음 시도된 토론 훈련과 현장훈련의 통합 연계훈련을 행

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미러링 기능 지원으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현장의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현실감 있는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참관단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고등학교 밴드부의 직접적인 훈련참여를 이끌어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발생에도 신속·정확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안전한 영양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훈련에서 작년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영양군은 영양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합동설계단 운영...예산절감 및 조기 발주 기대



남해군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해군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설계단'은 3개반 4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8일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합동설계단은 주민숙원사업과 도로 등 각종 소규모 건설사업 133건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18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8일간 남해군 전산교육장과 각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운영된다.

'남해군 합동설계단'은 건설교통과장이 단장을 맡고, 본청과 각 읍·면 시설직 공무원 42명이 참여하며, 특히 신규직원과 9급 하위직 담당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설계단은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도서 작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시켜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이용준/기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은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과 시설직 공무원들의 실력향상도 기대된다"며 "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애들아~ 신나게 놀면서 배우자... 영등포구,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풍성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 강좌 등 마련

영등포구가 학생들이 보람차고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에서 '겨울방학 특별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는 겨울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문화 강좌 등을 마련했다.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는 2024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7종목 20강좌를 연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수영 ▲농구 ▲트램펄린 ▲플레이 스포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야동 미술 ▲바둑&체스 ▲방송 댄스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방학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줄넘기, 피구, 풋살 등 학교 교과 과정을 반영한 '플레이 스포츠'를 신규 강좌로 편성했다. 플레이 스포츠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들



학생들의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신체 활동 증진을 돕는다.

한편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종목 8강좌를 운영한다. ▲수영 ▲성장 요가 ▲K-POP 댄스 ▲

서킷 피트 트레이닝 ▲예쁜 노트 글씨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 내 1층 고객 만족센터로 현장 신청(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영등포 구민 대상 선착순 모집 후에는 타 지역 주민도 프로그램 신

청이 가능하다.

제1스포츠센터 신청 기간은 구민 대상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구민과 타 지역 주민 대상은 12월 26일부터 마감 시까지이다. 제2스포츠센터 신청 기간은 구민 대상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구민과 타 지역 주민 대상은 12월 20일부터 마감 시까지이다. 강좌별 시간, 장소, 정원, 강습료 등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영등포 제1·2스포츠센터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평소 학업에 매진하느라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성북구-성가복지병원, 사회적으로립가구 의료지원 동행방문 협약 추진

통합사례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의료부문 개입의 한계 해소

서울 성북구와 성가복지병원은 지난 4월부터 성북구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동행방문 네트워크 협약을 시작으로 성북구 내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왔다.

통합사례관리 현장에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의료부문 개입에 대한 한계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이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 신체·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병원을 진료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대상자가 있다. 이처럼 의료적 지원 연계가 어려운 사례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편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성가복지병원이 동행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적 치유와 의료적 치료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4월 협약 이후 성가복지병원·성북구청 동행방문 "당신의 손을 잡아드려요"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성북구와 성가복지병원은 지난 4월부터 성북구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동행방문 네트워크 협약을 시작으로 성북구 내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왔다.

이처럼 성가복지병원에서는 소외이웃을 위한 무료병원으로 무료 진료 및 약 처방, 입원, 호스피스, 타 의료기관 연계 등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료 급식, 이미용, 목욕,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당신의 손을 잡아드려요" 사업을 통해 성가복지병원과 함께 8건의 동행 방문이 이루어졌고, 이 중 2가구는 의료진이 가정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한 의료지원 연계는 45건의 전화상담, 17건의 외래진료, 5건의 입원 등이 있다.

동주민센터가 의료지원이 필요함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가구가 있을 시, 성가복지병원에 동행 방문을 요청한다. 성가복지병원 사회사업과 수녀가 함께 대상 가구에 방문해 상담을 통해 신체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한다. 설득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가 힘든 가구에 한해 성가복지병원 소속 의료진이 함께 가정방문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치료를 거부하던 대상자도 병원 의료진이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진행해 병원과 신뢰를 쌓고, 병원 진료를 시작하는 대상자도 생겼다. 한 사례로 2년 전 위암을 진단받았으나 병원비, 간병 문제로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 후 약물이 몸에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방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는 고령의 대상자가 있었다. 그는 유튜브와 건강기기 판매업체를 맹신하며 침술법, 식이요법 등 민간요법에 생계비 대부분을 지출하며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않았다. 동주민센터가 성가복지병원 수녀님들과 동행방문을 진행, 건강상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설득한 끝에 대상자는 병에 대해 인지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성가복지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을 시작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과금도 몇 개월씩 체납될 정도로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정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해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자궁선근증, 척추협착 등으로

00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은 "그 동안에는 대상자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함께 설득도 하고, 의료진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까지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지원이 되어 대상자 지원에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가복지병원 사회사업과의 돈보스코 수녀님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 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제적, 심리적인 상태도 고갈되어 더는 일어설 수 없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은 남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한다. 그리고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벽을 쌓는다. 이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구역에 늘어나고 있다. 적어도 생활 고와 사회적 고립 체감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행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상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대·중·소유통 상생 협약 체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공식화

구, 19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내년 1월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로 전환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19일 공식으로 체결했다.

구는 1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협력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는 내용 외에도, 대형유통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초구는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참석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있기

까지 협조해 주신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그간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평일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 MOU 체결로 공식화 됨에 따라,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홍수/기자



조인이 주신 문화
희망하는 봉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세액공제 → 기부자 → 답례품

봉화군 ← 기부자 → 지역생산자

봉화군 |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강원도, 2023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강원한우”대통령상 수상

“강원한우”대한민국 명품 축산물 브랜드 반열에 올라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의 축산물 브랜드를 선발하기 위해 개최된 “2023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브랜드 “강원한우”가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내 한우·한돈 5개 브랜드가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전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발·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축산물 브랜드 부문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회로 생산·유통·판매·위생안전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는 대회이다.

금회 최고의 브랜드로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브랜드인 “강원한우”가 선정되어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늘푸름홍천한우”와 “백두대간한돈” 브랜드가 한우·한돈분야 장려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유기·무항생제부문에서 “대관령한우”, 명품브랜드 인증에 “횡성축협한우”가 그 이름을 올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축산물 생산지로서의 입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원한우”는 총 3회의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 브랜드로 인증 받았으며,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포함 두 개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자치도 농정국은 “이번 대회는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강원 축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르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내년도 1시군 1품(一品)축제 14개 선정

논산딸기·금산삼계탕·서산해미읍성축제 비롯 우수 6개, 향토 5개 축제

충남도는 내년도 1시군 1품(一品) 축제로 논산딸기축제와 금산삼계탕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비롯해 향토(우수) 축제 6개 및 향토(유망)축제 5개 등 총 14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선정한 1시군 1품(一品) 축제는 시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토(우수) 축제는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서천한산도시문화제 △계룡군문화축제 △홍성바베큐페스티벌이다.

향토(유망) 축제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

길 축제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태안 모래조각페스티벌 △장진면천진달래 축제가 이름을 올렸다.

도는 14개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물론, 지역의 관광산업을 견인해 나갈 관광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개 축제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외부 자문(컨설팅) 의무화 등 실질적인 축제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식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가 충남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적법 사용 강조

아산시가 19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적법한 사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을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세대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제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판매사가 거름망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음식을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게 되고 공동주택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과부하 및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초래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 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의 주범?

적법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용수용량(1리터) 20% 이하인 회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낮은 용수용량(1리터)은 80% 이상 회수율로 회수율 용수용량(1리터) 항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지제품
※ 다른 용도(식기세척 등)를 할 수 없습니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에 회수물을 토출해 주민수용회수통 적법 사용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크로 악취, 악취 발생 / 회수 처리장 문제 발생 / 하천 수질 오염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충북도, 2024년도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 시작

12월 15일부터 모집 시작, 내년도 농촌인력난 해소 앞장

충북도는 농촌 인력난 해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2024년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 도시 유희인력이며 선발 후 기초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군 농정부서 및 도시농부 중개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도시농부 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인건비 6만원 중 40%(2만4천원)는 도와 시군이 보조하며 나머지 60%(3만6천원)는 농가 부담하며, 그 외 농작업 거리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이뤄진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

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올해 4천명 이상이 신청하여 연 6만 4천명 이상의 일손 지원 실적을 올리는 등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사업에 참여한 도시농부는 “은퇴 후 좋은 일자리도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줘 보람도 있었다. 도시 유희인력의 활용과 안정적인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일손지원 희망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은퇴자 등 도시 유희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부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5억 원 확보

원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하여, '부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했다.

원주시는 '부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부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부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시설로 총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부른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부른산업단지는 향후 3천 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할 전망으로, 식당, 카페, 편의점, 문화·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에 거

점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른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공유 공간이자 지역공동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부른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장성·구문소 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사업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태백시는 지난 15일 태백호텔 대회의장에서 장성·구문소 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2년차 사업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사업주체인 주민위원 20여명, 관계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동에서는 탄탄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주도 문화거리 조성, 광부 역사기록 전시 등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구문소동은 구·보훈회관을 활용하여 주민주도 목공예 공방 조성을 위한 교육 등 운영 준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아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라며 “내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3년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장성·구문소 지역의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 수도 서울 영공 방어하는 국군장병 격려 및 대비태세 점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8787부대)과 육군 제1방공여단(오성대대)을 잇따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말 추운 날씨에도 수도 서울의 영공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한다.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과 육군 제1방공여단은 적 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다.

서울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충돌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과 최근 북핵·미사일의 고도화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11월 전시 방호대책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북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주제로 12일 두 번째 안보포럼을 여는 등 시민 안전과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안보 활동을



의 노력과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오 시장은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8787부대를 방문해 부대 포대장으로 부터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소·레이다 장비 등을 살펴봄에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이어 육군 제1방공여단 오성대대를 찾아 서울 상공의 적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신형 30mm 차륜형 대공포 '천호',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도 살펴본다.

최광수/기자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도내 가금농가 16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북도가 12월 6일 익산에서 최초 발생 이후 18일 현재 가금농장 16개소와 야생조류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소독차량 80대에서 109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도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소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0개소)이 집중됨에 따라 산란계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산란계 농장(54개소)에는 각 시·군 축산부서 담당자를 소독책임관으로 1대1로 지정(54명)해 농장별 소독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 확인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산란계 5만수 이상 사육하고 있는 23개소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출입자의 통제와 소독을 위하여 농장소소를 설치하고 농장내 분뇨와 계란 반출을 줄여 외부로부터 오염 유입을 최소화했다.

한편 부안 육용오리에 발생한 건은

동물위생시험소 정기검사서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오리농가 정밀검사 주기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사전 예찰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오리농가 소속 계열회사 관리하에 매일 농장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오리 병아리를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는 가축방역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소독 시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23.12.16일~12.24일)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수 발생한 만큼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다."며,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농장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점검, 점검 또 점검...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관악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점검 실시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및 전세사기 피해자 수 급증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쌓인 상태예요" "전셋방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기가 두렵네요"

관악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전세사기 피해 다수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앞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5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법 위법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을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정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

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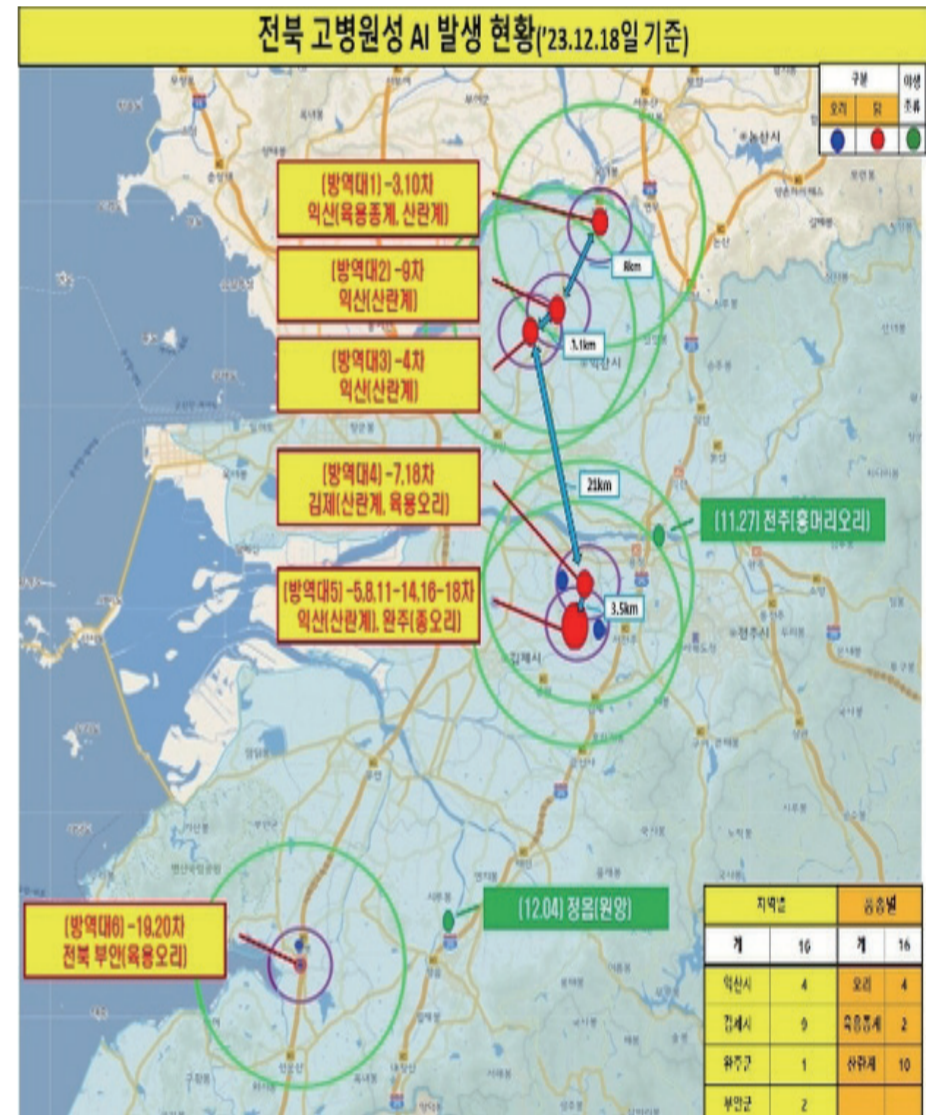
강성원/기자



관악구



서울특별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산업안전 경북을 위하여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추락위험 방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 철저

끼임위험 방지

건설기계 등 설비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철저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철저

경북교육청, 안전 한국훈련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임종식 교육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참여 높은 평가 받아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국 규모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소속기관·단체, 대학, 국립대 병원과 각급 학교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교육부, 교육청, 학교,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 관계기관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통합연계 훈련(토론+현장)으로 진행한 점과, 많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이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으로 스키관장의 훈련 참여도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 △재난 현장 관계기관 협업 능력 △ 훈련 전 과정의 단계별 수행 능력 등을 우수한 점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임종식 교육감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현장과 소통하며 훈련을 직접 주재해 훈련의 관심도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실제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참여와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돌려뿐만 아니라, 전 기관과 학교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선정 요인으로 꼽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안전 한국훈

련으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학생·교직원 인명 및 교육재산 피해 최소화 점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한국훈련 기간 집중 훈련으로 공무원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 해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을 위한 장학금 3억 원 지급

경북 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00명에게 장학금 지원



경북교육청은 19일 '따뜻한 사랑 모아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 3억 원을 경북 도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모금된 성금은 각급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5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장학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개별 계좌로 입금했다.

'따뜻한 사랑 모아, 희망 나눔 캠페인'은 지난 6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장학금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6월 모금한 약 1억 3천여만 원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 약 1억 7천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원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전해질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더욱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건설안전환경대상 교육 부문 대상 수상

그동안 실질적으로 학교 환경 변화 선도한 공로 인정 받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18일 오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건설산업 분야, 국가와 사회발전에 업적이 지대한 단체·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부산교육청은 그동안 인성 기반 학력 신장, 희망사다리 교육 등 공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학교 환경

변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 안전망 구축과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과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 가치를 정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근수/기자

'2023년도 예천교육지원청과 예천군청이'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 장학지원 사업



예천교육지원청과 예천군청은 지난 18일, (주)신진유지건설(대표 김인식)의 지원을 받아 예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의 가정에 장학 물품을 전달하는 '사랑의 나눔 장학 지원 사업'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소장 김호태, 신진유지건설 소장 신익도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주)신진유지건설의 후원으로 예천교육지원청 소속의 특수학급이 설치되

지 않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의 가정에 장학 물품이 전달되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장학 나눔 행사는 매년 약 300만원 상당의 쌀 40kg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주)신진유지건설 김인식 대표는 "예천교육지원청 및 예천군청과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지역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예천군청 맑은물사업소 김호태 소장은 "2023학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예천 지역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창희 교육장님과 김인식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예천교육'이라는 슬로건처럼 학생들에게 온기 가득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고 학생들이 밝게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예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가족들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우리 모두 다함께 행복학교 어묵 Day'

학교폭력 예방 및 바른 인성 함양 이벤트

'따스고 정감이 넘치는 이색적인 환상의 이벤트' 행사 펼쳐

명인중학교는 지난 15일, '따스고 정감이 넘치는 이색적인 환상의 이벤트' 행사인 '우리 모두 다함께 행복학교 어묵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기획되었고 등굣길 학생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준비한 따뜻한 어묵과 어묵국을 맛보았고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백경애 교장은 "길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어묵이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것이라 의미가 있고,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날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우리를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더 행복해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금자/기자



봉화교육지원청, 2023년도 학교체육지도자관리 및 학교체육지역(진흥)협의회 실시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은 2023년 12월 18일 2023년도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및 지역사회 생활체육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2023년도 학교체육지도자관리 및 학교체육지역(진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봉화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체육계 유관기관 봉화군청, 체육시설팀, 봉화군체육회,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및 학교체육활성화 방안,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으로 지역체육활동연계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방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자는 '군지역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활성화와 내실있는 학교체육교육발전 실천을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체육단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4년에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지역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심과 학교체육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머리-보내기

한걸음 다가감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머리-보내기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마을, 남이포, 삼의계곡, 수리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측백수림, 외새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재활보조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화공원, 영양공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충청북도-호찌민시 경제통상포럼 개최

양 지역 산업·기업 간 협력방안 모색



베트남을 방문중인 김영환 지사가 18일 호찌민시 뉴월드 호텔에서 충청북도와 호찌민시 산업, 기업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양 지역 공무원, 경제단체, 기업인, 대학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지난 9월 판만마이 호찌민시장이 한국 방문 시 연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기업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김영환 지사는 “오늘은 충청북도와 호찌민 시가 형제자매가 된 의미 있는 날”이라며 “자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참석자들의 진솔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김지사의 기조연설에서는 창조적인 변혁을 위한 충북의 실험이란 주제로 민선 8기 충북도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남대의 대변화, 도청공간의 변모, 뚫난이 농산물 등 업사이클링 시도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대의 협력도 틀에 박힌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 발상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관점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력산업간 협업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문진철 센터장이 충청북도의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오송바이오산학융합원 정재환 원장이 충북의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호찌민 시 전력산업인 그린에너지

와 스마트시티에 대해 Vu Phong 에너지 그룹 An Pham Dang 대표와 호찌민시 Tri Nam 그룹 Do Ba Dan 회장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주요 기업의 사업발표 자리에서 충북에서는 도내 전력산업 분야 주요기업인 LG화학, 바이오톡스텍, 어보브 반도체가 각각의 주요 사업과 협업 분야에 대해 제안했고, 호찌민에서는 Green viet, Sovico 그룹 등이 그린에너지, 스마트 시티분야 사업 현황과 협업 희망 분야를 발표했다.

충북도 정초시 정책수석특별보좌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양 지역 기업 간 다양한 협업방안이 도출됐는데, 특히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태양광 등 충청북도의 기술력과 산업인프라와 호찌민시의 그린에너지 수요가 합쳐지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기업 간 실질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환 지사는 또한 호찌민 주요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 충북형 K-유학생 제도도 호찌민시 석박사급 우수 학생 유학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호찌민시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베트남 국립대 호찌민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호찌민시 대학들은 충청북도의 K-유학생과 석박사급 유학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호찌민시 충청북도 국제자문관,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민선 8기 해외 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의 디딤돌이 될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청주출신의 김일경 비바 사이공 대표를 충청북도 명예대사로, 백수영 Intrepid 대표를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간담회에는 기존에 충청북도 명예대사로 위촉되어 충청북도 호찌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민경창 대사로도 참가하여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상설전시판매장 추진 등 무역통상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포럼 당일 조찬에는 충청북도 출향기업인 10여명이 참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전응식 대원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영환 지사는 “낯선 이국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성공을 이뤄낸 것을 치하한다”며 “충청북도가 호찌민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만큼 출향기업인들이 적극 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현지 대학관계자와의 면담 및 도내 기업인, 경제통상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유관부서 및 충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 긴밀히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영주시,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전 부문' 수상

‘활력있는 지역경제 건설’ 노력 인정받아 SK스페셜티(주), 과감한 투자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영주시는 19일 경상북도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투자기업', '공무원' 총 3개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평가이다.

영주시는 한 해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단체 부문과 공무원 부문(투자유치과 김동영 주무관)에서 각각 '장려상'을, 투자기업 부문에서 SK스페셜티(주)가 '대상'을 수상해 전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민선 8기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 한해 5100억 원(4개사, 240명 고용 창출) 투자유치 실적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 7월 SK스페셜티(주)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지역의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의 투자유치 및 2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냈고, 이 외에도 찾아가는 기업 유치활동,

맞춤형 사후관리, 해피모니터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고충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성화 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분투해왔다.

한편, 항토기업 SK스페셜티(주)는 지난 2021년 20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공로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STAXX)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아 투자기업 부문에서 단독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올 한 해 동안 영주시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투자유치를 위해 펼친 각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다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에 감사드리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경제 활력 제공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최광용/기자

하동산 딸기 국내 최초 영국·사우디 수출

하동군, 옥종딸기 900kg 첫 수출...별천지 하동 가공식품 영국시장 수출 확대

하동군은 19일 하동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승철 군수, 강대선·박희성·하인호 군의원, 김은수 농협 군지부장 및 지역농협장, 수출업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공식품의 영국 수출과 옥종딸기의 영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첫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된 제품은 농산물 가공식품 7품목 3만 7000달러 어치와 하동 옥종딸기 300kg 7000달러 어치이며 영국의 대표 아시아인 마트인 H-MART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날 하동 옥종딸기는 600kg 1만 4000달러 어치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위한 선적을 마쳤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

며, 지난 5일에도 옥종딸기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수출길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선적된 품목은 기존 영국에 수출 중인 하동성진강쌀, 냉동감밥과 더불어 신규 수출품목인 (주)하동옥종딸기의 딸기, (주)자연향기의 조미김과 김부각, (주)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의 과일칩, (주)하동울림의 맛밤과 고구마칩, (주)솔루푸드의 배즙과 매실액기스 등이다.

군은 앞으로 수출 물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이중 과일칩, 맛밤, 배즙 등은 지난달 21일 국가최고 회의기구인 국무회의장에서 선보인 하동군 벤처농업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출 성과는 2022년 9월~2023년 6월 하승철 군수를 단장으로

한 해외시장개척단의 북미·유럽시장 개척 활동의 결과물로, 미국·영국 최대 규모의 아시아인 마트 H-MART와 같은 대형 유통체인에 하동 농식품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320만 달러 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하동 농산물의 영국 수출실적은 2022년 11월 4만 5000달러에서 올해 11월 현재 12만 4000달러 어치로 172.6% 증가하며 가파른 수출 확대 추세를 보였다.

이중 하동성진강쌀은 영국 현지 소비자의 큰 호응에 힘입어, 수출량이 2022년 11월 기준 31t 7만 달러에서 올해 11월 현재 56t 12만 4000달러 어치를 수출해 75.5% 증가해 향후 수출물량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딸기와 가공식

품 수출은 하동군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주·동남아시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인 유럽(영국)·중동시장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큰 계기가 됐다”며 “행정과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해 별천지 하동 농산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섬풀장·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역
7만7820m²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킹덤 조성

